

3) 복지회관

1987년에 신축된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건평 약 200여 평]로 유아원, 노인학교, 서예 교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아원은 최근에 평해어린이집으로 신축, 이전되었다.

4) 성황당(城隍堂)

1950년대에 신축하여 황씨신(黃氏神)을 모시는 곳이다.

5. 전설

상리·상성리(上城里)·상성저리(上城底里)는 모두 이 마을의 옛 이름으로 과거 평해군청 소재지 외각에 축조된 평해석축성(平海石築城)의 위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은 먼 옛날에 정씨(鄭氏)가 다래밭을 걷고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제13절 평해2리(平海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청학산(靑鶴山), 서북쪽은 금곡산[金谷山 : 일명 三聖山]의 능선을 따라 석축(石築)으로 쌓아진 평해성터(平海城址) 아래에 형성된 마을이며, 그 사이에 평해들이 펼쳐있다. 마을 앞을 동해로 흐르는 남대천(南大川)이 있다. 읍사무소에서 서쪽 도로와 남행(南行) 도로를 경계로 평해1리와 접하고, 남행 도로변은 상가와 시장이 형성되어있으며, 평해성터 동쪽에 평해향교가 있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평해리에 분구(分區)되어 평해2리가 되었고,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 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평해2리가 되었다. 마을회관은 1985년에 신축 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158세대가 거주하며 경주 이씨(慶州李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등이 주종을 이루고 기타 성씨들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特徵)

1) 느티나무

평해2리 원터 앞에 있는 수령 약 700여 년의 느티나무로 군지정보호수(郡指定保護樹)이다. 이 나무는 평해군으로 옮길 때 심은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15m, 둘레 7.3m로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이 나무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2) 동제(洞祭)

음력 정월 15일, 5월 5일, 9월 9일 년 3회 동제(洞祭)를 올린다.

3) 성터(城址)

신라 진덕여왕(眞德女王) 4년에 축조된 높이 9자(尺), 길이 2,325자(尺)의 석성(石城)이 있었던 곳으로 성내(城內)에는 우물 3곳, 연못 2곳이 있었다 하나 모두 없어지고 우물 1곳만 남아있다.

4) 성황당(城隍堂)

조선조 고종 말 때 창건(創建)하였으며, 황씨신(黃氏神)을 모시는 곳이다.

5) 원터(院址)

옛 동헌(東軒)이 자리한 곳으로 그 주위에는 당시에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오래된 느티나무(槐木)가 여러 그루가 있다. 원터에는 현재 민가(民家)가 형성되어있다.

6) 평해향교(平海鄕校)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에 있는 고려 후기 향교 건축물이다. 평해향교는 1357년(공민왕 6)에 저전(楮田) 반월산(半月山) 아래에 지었다가, 1407년(태종 7)에 군수 김한철(金漢哲)이 송릉동(松陵洞)으로 이건하였다. 1470년(성종 1)에는 대성전(大成殿)이, 1474년(성종 5)에는 명륜당(明倫堂)이 지어져 어느 정도 향교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에 향교가 병화를 입어 소진된 것을, 1585년(선조 18)에 수령과 향중(鄕中)이 협찬하여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1686년(숙종 12)에는 제기고(祭器庫)가 지어졌으며, 1732년(영조 8)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중수되었고, 1742년(영조 18)에 비로소 동·서무가 지어졌다. 1869년(고종 6)에는 동·서무와 태화루(太和樓)가 중수되었고, 1886년(고종 23) 가을에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수리되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양 측면에 풍판을 단 맞배기와집이다. 정면은 외일출목(外一出目) 이익공(二翼工)의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배면은 무출목(無出目) 이익공(二翼工)의 홑처마로 되어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기와집이다. 동·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홑처마의 맞배기와집이다. 태화루는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2층 누각 건물로 맞배기와집이다.

5. 전설

하리(下里)·하성리(下城里)·하성저리(下城底里)는 모두 이 마을의 옛 지명이며 평해성터(平海城址)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 정씨(鄭氏)가 다래밭 덩굴이 우거진 이곳을 처음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제14절 평해3리(平海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청학산(靑鶴山), 북쪽에는 반월산[半月山, 딱재]이 있고, 그 사이로 평해안들[남대천제방 북쪽 들]이 마을 앞에 펼쳐있다. 동남쪽은 둔기산(屯起山)과 빗뒤마을(雨後里), 뒷산 사이에 평해평야가 있으며, 남대천이 들 가운데를 지나 동해로 흐르고 있다.

북쪽은 평해 1리와 인접하고, 서쪽은 송릉구릉(松陵丘陵)과 청룡산(靑龍山)[삼달리에서 봐서 청룡산을 뒤로 동향(東向)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회관은 1983년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 평해리에서 분구(分區)되어 평해3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 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평해3리가 되었다.